

지역주민의 한방의료 이용성향과 진료만족도

서호석^{1)*} · 남철현²⁾ · 김재돈³⁾ · 김성진⁴⁾ · 류장근⁵⁾ · 전봉천⁶⁾ · 김미애²⁾

¹⁾국립의료원, ²⁾대구한의대 보건대학원, ³⁾우리한의원, ⁴⁾홍제한의원, ⁵⁾동주대학, ⁶⁾봉천한의원

Trends in the Use of Oriental Medical Care Service and Treatment Satisfaction

Ho-Suk Suh,^{1)*} Chul-Hyun Nam,²⁾ Jae-Don Kim,³⁾
Sung-Jin Kim,⁴⁾ Jang-Gun Ryu,⁵⁾ Bong-Chun Jun⁶⁾ & Mi-Ae Kim²⁾

¹⁾National Medical Center, ²⁾School of Public Health Daegu Haany Univ,

³⁾U-Ri Oriental Medical Clinic, ⁴⁾Hong-Je Oriental Medical Clinic,

⁵⁾Dong-Ju College & ⁶⁾Bong-Cheon Oriental Medical Clinic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 tendency in patients who seek oriental medical service and factors influencing patient satisfaction.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1,520 residents of a community during the period from February 5, 2005 through June 30, 2005 using a questionnaire. This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Of subjects who sought oriental medical service, 66.2% had musculoskeletal disorder and connective tissue disease, 18.9% had digestive tract disease, 16.4% had respiratory disease, 8.2% had endocrine-metabolic disease, 7.5% had circulatory disease and the remaining subjects had other diseases(p<0.001).

2. Of subjects who sought oriental medical service for the treatment of musculoskeletal disorder, 84.9% preferred acupuncture. Of those who had digestive tract diseases, 47.0% preferred packaged herbal medicine. Of those who had respiratory disease, 63.0% preferred packaged herbal medicine.

3. Acupuncture was the most often sought by subjects with musculoskeletal disorder. Packaged herbal medicine was sought by subjects with respiratory disease, digestive tract disease, endocrine-metabolic disease or circulatory disease. Tablet-type herbal medicine was sought by subjects with musculoskeletal disorder or digestive tract disease. Combined therapy was sought by subjects with musculoskeletal disorder, digestive tract disease, hematopoietic disease or immune disorder.

* Corresponding author : Ho-suk Seo, Chul-hyun Nam, Graduate School, Dae-Gu Hanny University.

Tel : 82-53-819-1218, E-mail : chnam777@hanmail.net

4.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oriental medical service was higher in subjects with circulatory disease, subjects with digestive tract disease, subjects with neurological disorder and subjects with musculoskeletal disorder in descending order. Of total subjects, 39.4% experienced side effects of oriental medical care, 38.1% experienced side effects of herbal medicine. About 51.9% considered the price of herbal medicine costly while 23.2% considered it reasonable.

5. Subjects' knowledge of herbal medicine was measured as 29.2 ± 3.83 out of 42 scores or 69 out of 100 points, indicating a low knowledge level. Subjects' knowledge was influenced by occupation, religion, side effects, sex, age, residence area, the type of insurance. These variables explained 15.2% of the variance.

7. Of total subjects, 56.8% were satisfied with oriental medical service. Patient satisfaction varied with occupation, religion, the type of insurance, health state and treatment outcomes. These variables explained 37.3%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e majority of subjects were satisfied with oriental medical service. However, oriental medical care are not widely used to treat all kinds of diseases while its use skews to a small categories of diseases. It is therefore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nd oriental medical service providers to develop new therapy approaches for the treatment of a broader range of diseases.

Key words : Oriental medical care, Satisfaction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각국의 의료체계는 서구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국가에서나 자체의 전통의료기존재하고 있으며 그 효용성이 자국 국민들에게 인식되어 있다(박성순, 남철현, 1999).

한방의료는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으로써 국가에서 공인한 한의학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있고, 국가의 면허를 받은 한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욕구와 이용률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196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져서 전통의학의 하나로써만 인식되거나 현대의학에 대한 일종의 보완적인 위치에 그치지 않고 현재는 보건의료체계의 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강영우, 1992, 이용일

외, 1991).

인구구조의 노령화, 전염성 질환으로부터 만성퇴행성 질환으로의 질병양상변화,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서양의학적 접근방법의 한계, 한방의료제도의 발전 및 육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 전통의료의 효용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고조(WHO, 2001) 등으로 인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방의료자원의 공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 증대가 곧 한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고가의 한방의료비, 낮은 의료보험 혜택은 의료 소비자들이 한방医료를 이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치료효과에 대한 검증 부족, 의료기기의 미발달, 협소한 치료범위, 인력 관리 및 한약재 관리 등 한방의료의 과학화, 표준화 미비에 따른 신뢰 부족도 의료 소비자들의 한방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김성진, 2001; 조재국, 2004).

생활 소득 수준의 향상은 의료 전반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의료 소비자들에게 질병 치료에 앞서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켰다. 한방의료의 보완재적 특성이 이러한 보건의료 수요의 특성 변화와 결부되어 한방의료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큰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으로 한방의료의 빠른 증가 폭은 그동안 양방의료에 비해 한방의료 공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었던 상황에서 한방의료의 실질적인 증가가 더욱 크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방의료 공급체계 개선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민간위주의 한방의료 공급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민간위주의 한방의료 공급 체계로 인해 한방의료는 한약유통과정과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 또는 기관별로 많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표준화의 부재는 한방의료의 현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5년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에서의 한방의료 공급을 본격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정부 정책 변화와 병행하여 한의계 내부에서의 과학화,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한동운, 2005).

이에 지역사회주민의 한방의료와 한약에 대한 인식행태 수준에 대한 자료는 한방건강증진사업의 제도화와 수행에 기초자료로서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새롭게 전개되는 보건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한방의료이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관하여 즉 한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질병 양상과 진료방법 그리고 소비자들의 치료만족도와 한약에 대한 지식수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

는 것은 보건의료정책과 소비자 관리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한의사 인력의 증가와 한방의료수요의 증가로 한방의료이용 성향과 한방진료방법 그리고 이에 대한 진료만족도를 파악하여 한방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특성별 한방진료의 만족도 수준을 파악
- 2) 한방질병양상과 질병별 치료방법 및 효과 정도를 분석
- 2) 건강상태와 진료비에 따른 한방진료의 만족도 수준을 파악
- 3) 한방진료 만족도와 의료부작용과의 관련 정도 파악
- 4) 한방지식과 진료만족도 및 관련요인을 파악
- 5) 한방진료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을 분석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이 연구대상은 20세 이상의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150명, 부산광역시 150명 그리고 울산,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에서 각100명, 중소도시(용인, 익산, 안동, 울산, 청주시)에서 각80명 그리고 읍면지역(용인구성, 의성, 청도, 담양)에서 각 80명씩 총 1,520명을 편의 추출하여 조사표본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5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이었다.

2. 조사방법

해당지역 대학생을 조사원으로 선발하여 교육시킨 후 각종 학원이나 단체모임 등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조사취지를 설명하여 동의를 얻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하였으며 자기기입이 어려운 경우는 직접 면접 조사토록 한 후 수거하였다.

3. 조사도구

강학원(1994), 박성순(1999), 서호석(2000)의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기존 선행논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고 지역주민 20명을 상대로 사전조사한 후 수정 보완하여 이 논문의 최종 설문지로 하였다.

4.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나누어 총 49문항으로 하였다.

종속변수: 치료의 만족도

독립변수: 인구학적변수 — 4문항

사회경제적변수 — 5문항

부작용: 2문항

건강상태 — 1문항

질병별 치료방법 — 21문항

치료효과 및 진료비 — 2문항

한방지식 — 14문항

5. 자료처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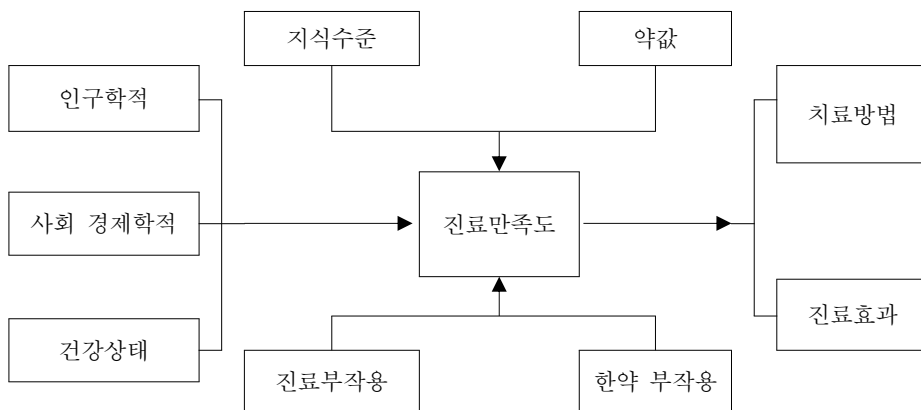
1) 분석틀

진료만족도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건강상태, 한방지식, 한방진료와 한약의 부작용, 약값 치료방법과 효과변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들 변수는 이들 상호간 그리고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변수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그림 1).

2) 자료처리

수집된 설문지는 부호화하여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분석에 무리가 있는 응답지 160매를 제외한 총 1,360매(총 1,520매의 89.0%)를 최종 분석 자료로 하였다.

설문지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한 바



<그림 1> 연구모형

chronbach @는 최소 0.6754에서 최대 0.9156으로 기준 0.6을 넘어 설문지의 신뢰도는 높았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빈도와 백분율, ANOVA 분석을 하였으며 유의성 검정은 χ^2 -test로 하였다. 자료의 만족도는 Likert 5점 척도로 분석하였으며 매우 만족을 5점으로, 매우불만족을 1점으로 하였다. 보건지식은 바른 답 3점, 모른다 2점, 그릇된 답은 1점으로 하였다.

VI. 조사결과 및 고찰

1. 한방진료 양상

조사대상자가 지난 6개월간 한방병의원에 가서 진료 받은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6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소화기계 질환이 18.9%, 호흡기 질환 16.4%, 내분비영양대사질환 8.2%, 신경계질환이 8.0%, 순환기계 질환 7.5%, 피부 및 피하조직질환 5.8%의 순이었다<표 1>.

<표 1> 한방진료 질병양상

N=1360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1개대분류)	인원수(명) 1,360	백분율(%) 100.0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	12	1.2
신생물	-	-
혈액, 조혈기 질환 및 면역장애질환	48	4.2
내분비, 영양대사 질환	92	8.2
정신 및 행동장애(노이로제 등)	48	4.3
신경계 질환	88	8.0
눈 및 눈 부속기 질환	24	2.2
귀 및 유양돌기 질환	36	3.2
순환기계질환(심장병, 고혈압 등)	84	7.5
호흡기계질환(감기, 폐 등)	184	16.4
소화기계질환(위궤양, 대장염, 위염 등)	212	18.9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64	5.8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740	66.2
비뇨생식기계 질환	44	2.2
임신, 출산, 산욕	44	4.0
주산기에 관련된 병태	8	0.8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	-
분류되지 않은 증후, 증상, 임상 및 검사소견	32	2.9
손상, 중독 및 외인의 기타 결과	16	1.4
질환이완 및 사망의 외인	-	-
보건상태 및 보건조사자와의 접촉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	8	0.7

이는 강학원(1994) 조사에서 보인 근골격계 질환 23.6%, 신경계 질환 19.3%, 순환기계 질환 10.8%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질병 분류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2. 질병별 한방진료 방법

한방진료 경험자를 대상으로 질병별로 한방진료 방법별로 분류하여 보면 가장 진료율이 높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의 경우 침치료가 81.4%로 가장 높았으며 환약이 5.4%, 침치료가 4.3%, 복합치료가 5.4%였다<표 2>. 소

화기계 질환의 경우는 침약이 47.2%로 가장 높았고 침치료가 24.5%로 다음이었고, 환약 13.2%, 복합치료는 각 15.1%였다.

호흡기 질환의 경우는 침약이 63.0%였고 침치료는 28.4%, 환약과 복합치료가 각 4.3%였다.

신경계 질환의 경우는 침치료가 66.2%, 침약이 18.1%였으며, 환약과 복합치료가 각 4.5%였다.

내분비, 영양대사 질환의 경우는 침약이 73.8%, 침치료가 13.1%였고 환약이 8.6%, 복합치료 4.3%였다.

순환기계 질환의 경우는 침약이 61.9%로 가장 높았고 침치료가 23.8%, 복합치료가 14.3%였다.

<표 2> 질병별 한방진료 방법

N = 단위 %(명)

한국표준사인분류(대분류)	계	침치료	침약	환약	복합치료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	100.0(12)	33.3(4)	-	33.3(4)	33.3(4)
신생물	-	-	-	-	-
혈액, 조혈기 질환 및 면역장애질환	100.0(48)	33.3(16)	33.3(6)	0.1-	33.3(16)
내분비, 영양대사 질환	100.0(92)	13.1(12)	73.9(68)	8.6(8)	4.3(4)
정신 및 행동장애(노이로제 등)	100.0(48)	58.3(28)	16.7(8)	16.7(8)	8.3(4)
신경계 질환	100.0(88)	66.2(60)	18.1(16)	4.5(4)	4.5(4)
눈 및 눈 부속기 질환	100.0(24)	83.3(20)	16.7(4)	-	-
귀 및 유양돌기 질환	100.0(36)	44.5(16)	55.5(20)	-	-
순환기계질환(심장병, 고혈압 등)	100.0(84)	23.8(20)	61.9(52)	-	14.3(12)
호흡기계질환(감기, 폐 등)	100.0(84)	28.4(52)	63.0(116)	4.3(8)	4.3(8)
소화기계질환(위궤양, 대장염, 위염 등)	100.0(212)	24.5(52)	47.2(100)	13.2(28)	15.1(32)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100.0(64)	81.9(52)	6.2(4)	6.2(4)	6.2(4)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100.0(740)	84.9(628)	4.3(32)	5.4(40)	5.4(40)
비뇨생식기계 질환	100.0(44)	45.5(20)	45.5(20)	9.0(40)	-
임신, 출산, 산욕	100.0(44)	27.3(12)	72.7(32)	-	-
주산기에 관련된 병태	100.0(8)	-	50.0(4)	50.0(4)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	-	-	-	-
분류되지 않은 증후, 증상, 임상 및 검사소견	100.0(32)	25.0(8)	37.5(12)	-	37.5(12)
손상, 중독 및 외인의 기타 결과	100.0(16)	50.0(8)	-	-	50.0(8)
질환이완 및 사망의 외인	-	-	-	-	-
보건상태 및 보건조사자와의 접촉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	100.0(8)	-	-	100.0(8)	-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침치료가 58.3%였고 침약, 환약이 각 16.7%였으며 복합치료 8.4%였다.

피부 및 피하조직질환은 침치료가 81.4%로 가장 높았고 침약, 환약, 복합치료가 각각 6.2%였다.

임산, 출산, 산육의 경우 침약이 72.7%로 가장 높았고 침치료는 27.3%였다.

혈액, 조혈기 질환 및 면역장애 질환은 침, 침약, 복합치료가 각 33.3%였으며 비노 생식기 질환은 침치료와 침약이 각 45.5%였다.

3. 질병별 치료 만족도 수준

질병별로 만족도를 보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을 보면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64.9%였고, 불만족은 3.1%에 불과하였으며, 소화기계 질환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54.7%였으며 불만족한다는 1.9%였다<표 3>.

호흡기 질환의 경우는 만족한다가 67.4%였고 불만족은 5.4%였으며, 순환기계 질환 치료 만족 응답률은 57.6%였고 불만족은 없었다.

<표 3> 질병별 치료 만족도 수준

N = 단위 %(명)

한국표준사인분류(대분류)	계	만족	보통	불만족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	100.0(12)	66.7(8)	33.3(4)	-
신생물	-	-	-	-
혈액, 조혈기 질환 및 면역장애질환	100.0(48)	33.3(16)	66.7(32)	-
내분비, 영양대사 질환	100.0(92)	39.0(36)	48.0(44)	13.0(12)
정신 및 행동장애(노이로제 등)	100.0(48)	41.7(20)	50.0(24)	8.3(4)
신경계 질환	100.0(88)	50.0(44)	50.0(44)	-
눈 및 눈 부속기 질환	100.0(24)	16.7(4)	50.0(12)	33.3(8)
귀 및 유양돌기 질환	100.0(36)	33.4(12)	55.5(20)	11.1(4)
순환기계질환(심장병, 고혈압 등)	100.0(84)	57.6(44)	42.4(41)	-
호흡기계질환(감기, 폐 등)	100.0(184)	67.4(124)	27.2(50)	5.4(10)
소화기계질환(위궤양, 대장염, 위염 등)	100.0(212)	54.7(116)	43.4(92)	1.9(4)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100.0(64)	46.9(38)	46.9(30)	6.2(4)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100.0(740)	64.9(480)	32.0(236)	3.1(24)
비노생식기계 질환	100.0(44)	63.6(28)	27.3(12)	7.1(4)
임신, 출산, 산육	100.0(44)	54.6(24)	27.3(12)	18.2(8)
주산기에 관련된 병태	100.0(8)	75.0(6)	25.0(2)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	-	-	-
분류되지 않은 증후, 증상, 임상 및 검사소견	100.0(32)	12.5(4)	75.0(24)	12.5(4)
손상, 중독 및 외인의 기타 결과	100.0(16)	25.0(4)	50.0(8)	25.0(4)
질환이완 및 사망의 외인	-	-	-	-
보건상태 및 보건조사자와의 접촉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	100.0(8)	50.0(4)	50.0(4)	-

치료에 만족하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질병은 주산기 관련 병태로 75.0%였으며 다음이 호흡기 질환의 67.4%였고, 근골격계 질환은 64.9%였고 임신, 출산, 산욕치료 만족률은 54.6%였다.

치료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질병은 분류되지 않은 중후, 증상, 임상 및 검사소견이 있는 질병으로 25.0%였고, 혈액, 조혈기 및 면역장애 질환은 33.3%였다.

4. 한방진료 받은 횟수(지난 6개월간)

한방진료횟수를 보면 3~4회가 21.5%로 가장 높았으며 5~9회가 17.1%, 1~2회가 15.3%의 순이었으며 없다는 17.6%였다 진료횟수와 모든 일반특성 요인과는 유의수준 $p < 0.05$ 기준으로 유의성이 있었다<표 4>.

지난 6개월간 한방 진료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률을 특성별로 보면 남자에서(18.8%), 20대 이하에서(26.3%), 학력이 높을수록 대학재학 이상(20.7%), 읍면지역(20.7%)으로 갈수록, 독신자에서(27.8%), 무종교자(25.2%), 의료보호자(31.8%)에서 높았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에서 30.3%, 무직자 27.3%, 전문기술직 23.4%, 단순노무직 21.4%, 농어업 12.5%의 순으로 한방진료를 하지 않았다.

20회 이상 한방진료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여자에게서 50세 이상자에서, 중졸 이하자에서, 농어업종사자에서, 유배우자에서, 종교를 가진 자에서, 읍면지역에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에서 경제상태가 상위층에서 각각 타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5. 한방진료 효과에 대한 견해

한방진료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견해를 가진 응답자는 57.4%였고 보통이다가 40.6%였으며 안 좋다는 응답률은 2.1%에 불과하였다<표 5>.

이는 박성순(1999)의 조사에서 좋을 것이라는

응답률 48.8%보다 높았으며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률은 2.4%로 이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근래에 이르러 만성퇴행성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이 질환의 치료에 한방이 더 긍정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과거보다 한방에 대한 이해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성별로 보면 성별과 연령별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효과가 좋다는 견해를 보인 응답자는 특성별로 보면 학력은 중졸이하자에 66.7%로($p < 0.001$), 직업별은 행정사무직에서 62.5%($p < 0.001$),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에서 57.1%($p < 0.01$), 종교유무에서는 유종교자에서 66.7%($p < 0.001$), 거주지역 별로는 중소도시 거주자에서 65.6%($p < 0.001$), 공교교원에서 62.0%($p < 0.001$), 경제상태별로는 경제상태가 상위자에서 64.7%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01$).

6. 한약 복용 후 부작용경험(경험자)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38.1%였고 없다는 응답자는 36.4%였다<표 6>. 특성별로 부작용 경험률을 보면 여자에서 42.0%로 남자의 34.2%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 < 0.001$),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자에서 52.7%로 월등히 높았다($p < 0.001$).

교육정도 별로 부작용 경험률을 보면 고졸자에서 42.0%로 타군 보다 높았고 중졸이하자에서 16.7%로 가장 낮았다($p < 0.001$).

직업별로 보면 부작용경험자는 학생에서 53.0%로 타군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전문기술직이 39.0%로 다음이었고 율외성이 있었다($p < 0.01$).

부작용 경험률은 미혼을 포함한 독신자에서 50.0%로 유배우자의 30.9%보다 높았으며($p < 0.001$), 종교가 없다는 자에서 42.3%로 있다는 자보다 높았고($p < 0.05$), 의료급여환자에서 48.4%로 타군보다 높았으며($p < 0.001$), 경제상태가 하

서호석 외 6인 : 지역주민의 한방의료 이용성향과 진료만족도

<표 4> 한방진료 받은 횟수(지난 6개월간)

단위 : %(명)

구 분	계	없다	1~2회	3~4회	5~9회	10~19회	20회이상	$\chi^2(df)$
	100.0(1360)	17.6(240)	15.3(208)	21.5(292)	17.1(232)	14.1(192)	14.4(196)	
성별								
남	100.0(680)	18.8	18.8	22.9	15.9	10.0	13.5	31.69(5)***
여	100.0(680)	16.5	11.8	20.0	18.2	18.2	15.3	
연령(세)								
≤29	100.0(472)	26.3	17.8	22.0	15.3	8.5	10.2	190.97(15)***
30~39	100.0(260)	20.0	21.5	16.9	20.0	12.3	9.2	
40~49	100.0(340)	9.4	4.7	29.4	21.2	23.5	11.8	
50≤	100.0(288)	11.1	18.1	15.3	12.5	13.9	29.2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0.0(132)	12.1	9.1	18.2	9.1	18.2	33.3	126.34(2)***
고졸	100.0(572)	15.4	16.8	22.4	16.8	15.4	13.3	
대학재학 이상	100.0(656)	20.7	15.2	21.3	18.9	12.2	11.6	
직업								
전문기술직	100.0(188)	23.4	12.8	17.0	19.1	10.6	17.0	270.95(40)***
교원	100.0(88)	5	22.7	13.6	31.8	4.5	22.7	
판매서비스직	100.0(168)	11.9	23.8	21.4	14.3	19.0	9.5	
단순노무직	100.0(56)	21.4	7.1	35.7	7.1	7.1	21.4	
농어업	100.0(32)	12.5	25.0	-	12.5	12.5	37.5	
학생	100.0(356)	30.3	19.1	21.3	14.6	6.7	7.9	
행정사무직	100.0(160)	7.5	12.5	35.0	20.0	12.5	12.5	
가정주부	100.0(268)	9.0	6.0	22.4	17.9	28.4	16.4	
무직	100.0(44)	27.3	18.2	-	9.1	18.2	27.3	
결혼상태								
독신자(미혼, 이혼, 사별)	100.0(576)	27.8	18.8	20.8	13.9	9.7	9.0	105.76(5)***
유배우자	100.0(784)	10.2	12.8	21.9	19.4	17.3	18.4	
종교 유무								
없다	100.0(556)	25.2	15.8	23.0	18.0	12.9	5.0	90.22(5)***
있다	100.0(804)	12.4	14.9	20.4	16.4	14.9	20.9	
현 거주지역								
대도시	100.0(988)	17.0	15.8	21.5	17.4	13.8	14.6	19.10(10)*
중소도시	100.0(256)	18.8	12.5	23.4	20.3	14.1	10.9	
읍면지역	100.0(116)	20.7	17.2	17.2	6.9	17.2	20.7	
의료보험상태								
직장보험	100.0(524)	13.7	15.3	23.7	16.8	14.5	16.0	68.54(15)***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100.0(200)	10.0	12.0	18.0	20.0	22.0	18.0	
지역보험	100.0(460)	20.0	15.7	24.3	17.4	10.4	12.2	
의료보호 및 부조(의료급여)	100.0(176)	31.8	18.2	11.4	13.6	13.6	11.4	
경제상태(주관적 판단)								
상	100.0(68)	5.9	11.8	23.5	23.5	5.9	29.4	49.38(10)***
중	100.0(1244)	18.3	14.8	21.2	16.4	15.1	14.1	
하	100.0(48)	16.7	33.3	25.0	25.0	-	-	

* : p<0.05, *** : p<0.001

<표 5> 한방진료의 효과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구 분	단위 : %(명)				X ² (df)
	계 100.0(1360)	좋은 편 57.4(780)	보통 40.6(552)	안 좋은 편 2.1(28)	
성별					
남	100.0(680)	54.1	43.5	2.4	
여	100.0(680)	60.6	37.6	1.8	5.95(2)
연령(세)					
≤29	100.0(472)	56.8	39.8	3.4	
30~39	100.0(260)	56.9	41.5	1.5	
40~49	100.0(340)	57.6	41.2	1.2	
50≤	100.0(288)	58.3	40.3	1.4	6.57(6)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0.0(132)	66.7	30.3	3.0	
고졸	100.0(572)	49.0	49.0	2.0	
대학재학 이상	100.0(656)	62.8	35.4	1.8	30.92(4)***
직업					
전문기술직	100.0(188)	57.4	42.6	-	
교원	100.0(88)	59.1	40.9	-	
판매서비스직	100.0(168)	54.8	45.2	-	
단순노무직	100.0(56)	57.1	42.9	-	
농어업	100.0(32)	50.0	50.0	-	
학생	100.0(356)	53.9	41.6	4.5	
행정사무직	100.0(160)	62.5	37.5	-	
가정주부	100.0(268)	58.2	40.3	1.5	
무직	100.0(44)	72.7	9.1	18.2	97.40(16)***
결혼상태					
독신자(미혼, 이혼, 사별)	100.0(576)	56.9	39.6	3.5	
유배우자	100.0(784)	57.7	41.3	1.0	9.97(2)**
종교 유무					
없다	100.0(556)	43.9	53.2	2.9	
있다	100.0(804)	66.7	31.8	1.5	69.88(2)***
현 거주지역					
대도시	100.0(988)	56.3	40.9	2.8	
중소도시	100.0(256)	65.6	34.4	-	
읍면지역	100.0(116)	48.3	51.7	-	21.47(4)***
의료보험상태					
직장보험	100.0(524)	55.0	43.5	1.5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100.0(200)	62.0	38.0	-	
지역보험	100.0(460)	57.4	40.9	1.7	
의료보호 및 부조(의료급여)	100.0(176)	59.1	34.1	6.8	29.07(6)***
경제상태(주관적 판단)					
상	100.0(68)	64.7	35.3	-	
중	100.0(1244)	57.2	40.8	1.9	
하	100.0(48)	50.0	41.7	8.3	12.28(4)*

* : p<0.05, ** : p<0.01, *** : p<0.001

서호석 외 6인 : 지역주민의 한방의료 이용성향과 진료만족도

<표 6> 한약 복용 후 부작용 경험(경험자)

단위: %

구 분	계 100.0(1156)	있음 38.1(440)	보통 27.3(316)	없음 34.6(400)	$\chi^2(df)$
성별					
남	100.0(584)	34.2	31.6	34.2	
여	100.0(572)	42.0	23.1	35.0	12.07(2)**
연령(세)					
≤29	100.0(364)	52.7	23.1	24.2	
30~39	100.0(208)	28.8	32.7	38.5	
40~49	100.0(312)	33.3	32.1	34.6	
50≤	100.0(272)	30.9	23.5	45.6	61.18(6)***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0.0(120)	16.7	30.0	53.3	
고졸	100.0(476)	42.0	25.2	32.8	
대학재학 이상	100.0(560)	39.3	28.6	32.1	31.63(4)***
직업					
전문기술직	100.0(164)	39.0	26.8	34.1	
교원	100.0(84)	33.3	28.6	38.1	
판매서비스직	100.0(144)	33.3	27.8	38.9	
단순노무직	100.0(52)	30.8	38.5	30.8	
농어업	100.0(32)	37.5	25.0	37.5	
학생	100.0(264)	53.0	22.7	24.2	
행정사무직	100.0(140)	31.4	40.0	28.6	
가정주부	100.0(244)	34.4	21.3	44.3	
무직	100.0(32)	12.5	37.5	50.0	62.62(16)***
결혼상태					
독신자(미혼, 이혼, 사별)	100.0(432)	50.0	23.1	26.9	
유배우자	100.0(724)	30.9	29.8	39.3	42.22(2)***
종교 유무					
없다	100.0(444)	42.3	27.0	30.6	
있다	100.0(712)	35.4	27.5	37.1	6.78(2)*
현 거주지역					
대도시	100.0(848)	40.1	27.4	32.5	
중소도시	100.0(216)	31.5	27.8	40.7	
읍면지역	100.0(92)	34.8	26.1	39.1	7.64(4)
의료보험상태					
직장보험	100.0(456)	34.2	23.7	42.1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100.0(196)	46.9	24.5	28.6	
지역보험	100.0(380)	34.7	31.6	33.7	
의료보호 및 부조(의료급여)	100.0(124)	48.4	32.3	19.4	34.72(6)***
경제상태(주관적 판단)					
상	100.0(60)	6.7	40.0	53.3	
중	100.0(1060)	39.2	27.2	33.6	
하	100.0(36)	55.6	11.1	33.3	32.24(4)***

* : p<0.05, ** : p<0.01, *** : p<0.001

위층에서 55.0%로 부작용 경험자가 유의하게 높았다($p<0.001$).

7. 한약약제비에 대한 견해(경험자)

약제비에 대한 의견은 부적당하다가 51.9%로 가장 높았고 적당하다는 23.2%였다<표 7>. 특성별로 보면 약제비는 성별, 교육수준, 종교 유무변수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연령별, 직업별, 결혼상태별, 거주지역별, 의료보험상태와 경제상태별에서도 유의성이 있었다. 즉, 약제비가 부적당하다는 견해는 대학재학이상자에서 55.7%, 행정사무직에서 65.7%, 유배우자에서 54.7%, 중소도시 거주자에서 64.8%,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에서 62.2%, 경제상태가 하위인 자에서 77.8%로서 각각 타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8. 한방 및 한약에 대한 지식수준

한방과 한약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첨 설문지의 14개항의 기초지식을 설문하여 정답은 1문항 3점으로 총 42점 만점으로 전산처리 한 결과 29.44 ± 3.83 (100점 기준 69.4점)이었다<표 8>.

이 결과는 박성순(1999)의 조사에서 보고된 100점 기준 39점과 임상규(1999)의 의약품관련 지식 수준 48.8점 보다 월등히 높았고 박성순과 남철현(1999)의 100점 기준 69.2점 보다 높았는데 이는 한의사협회의 한약에 대한 홍보자료, TV와 라디오의 한방관련 프로그램의 증가, 여러 한방병원자체의 홍보전략에 따라 국민들의 한방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관련 지식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있을 것이다.

남자가 29.69 ± 3.78 점으로 여자보다 높았고($p<0.05$),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자에서 30.08 ± 4.2 점으로 가장 높았고($p<0.001$), 학력수준에서는 대학재학이상자에서 29.76 ± 3.34 점($p<0.05$),

직업별은 학생에서 30.48 ± 4.0 점($p<0.001$), 독신자에서 29.76 ± 4.08 점($p<0.05$), 거주지역은 중소도시 거주자에서 29.63 ± 3.54 점($p<0.01$), 의료급여환자에서 29.80점($p<0.05$), 경제상태가 중위인자에서 29.54 ± 3.86 점($p<0.01$)으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9. 한방 진료만족도, 진료효과, 한약 부작용에 따른 한방 및 한약에 대한 지식수준

한방진료 만족도가 높을수록 한방 및 한약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았으며($p<0.05$), 치료 효과가 좋다는 응답자에서 지식수준이 높았고($p<0.001$), 한약의 복용 후 부작용이 경험 있다는 응답자에서의 지식수준은 유의하게 높았다($p<0.001$)<표 12>. 이는 한방에 관심이 많으며 한약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한약은 많이 이용하는 자에서 지식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약을 많이 이용하는 자에서 부작용 경험이 높고 부작용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만큼 한약에 대하여 지식을 많이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10. 일반적 특성별 한방진료 후 전반적인 만족도

전반적인 한방진료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가 56.8%였고 보통은 38.9%였으며 불만족한다는 4.3%에 불과하였다<표 13>.

이 결과에서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박성순(1999)의 한방진료 만족도 53.2%보다 높았고 동연구의 7.2%보다 낮았으며 이는 강학원(1994) 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률 52.6% 보다 약간 높았고 동연구의 불만족 10.7%보다는 크게 낮았는데, 이는 과거와 비교하여 질병양상에서 만성퇴행성 질환 발생이 증가하였고 한방진료 기술도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 할 수 있겠다.

서호석 외 6인 : 지역주민의 한방의료 이용성향과 진료만족도

<표 7> 한약 약제비에 대한 견해(경험자) 단위 : %(명)

구 분	계 100.0(1156)	적당하다 23.2(268)	보통이다 24.9(288)	부적당하다 51.9(600)	$\chi^2(df)$
성별					
남	100.0(584)	20.5	26.7	52.7	
여	100.0(572)	25.9	23.1	51.0	5.23(2)
연령(세)					
≤29	100.0(364)	28.6	25.3	46.2	
30~39	100.0(208)	19.2	25.0	55.8	
40~49	100.0(312)	19.2	23.1	57.7	
50≤	100.0(272)	23.5	26.5	50.0	13.91(6)*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0.0(120)	26.7	30.0	43.3	
고졸	100.0(476)	23.5	26.9	49.6	
대학재학 이상	100.0(560)	22.1	22.1	55.7	8.39(4)
직업					
전문기술직	100.0(164)	29.3	19.5	51.2	
교원	100.0(84)	23.8	23.8	52.4	
판매서비스직	100.0(144)	13.9	36.1	50.0	
단순노무직	100.0(52)	30.8	23.1	46.2	
농어업	100.0(32)	25.0	37.5	37.5	
학생	100.0(264)	27.3	24.2	48.5	
행정사무직	100.0(140)	11.4	22.9	65.7	
가정주부	100.0(244)	26.2	18.0	55.7	
무직	100.0(32)	12.5	62.5	25.0	69.14(16)***
결혼상태					
독신자(미혼, 이혼, 사별)	100.0(432)	26.9	25.9	47.2	
유배우자	100.0(724)	21.0	24.3	54.7	7.20(2)*
종교 유무					
없다	100.0(444)	25.2	26.1	48.6	
있다	100.0(712)	21.9	24.2	53.9	3.19(2)
현 거주지역					
대도시	100.0(848)	24.5	24.1	51.4	
중소도시	100.0(216)	18.5	16.7	64.8	
읍면지역	100.0(92)	21.7	52.2	26.1	55.15(4)***
의료보험상태					
직장보험	100.0(456)	18.4	22.8	58.8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100.0(196)	24.5	14.3	61.2	
지역보험	100.0(380)	27.4	31.6	41.1	
의료보호 및 부조(의료급여)	100.0(124)	25.8	29.0	45.2	42.30(6)***
경제상태(주관적 판단)					
상	100.0(60)	53.3	6.7	40.0	
중	100.0(1060)	21.9	26.4	51.7	
하	100.0(36)	11.1	11.1	77.8	44.58(4)***

* : p<0.05, *** : p<0.001

<표 8> 한방 및 한약에 대한 지식수준

구 분	계 1360	지식수준 M±S.D 29.24±3.83	
성별			
남	680	29.69±3.78	
여	680	29.20±3.86	t=5.55*
연령(세)			
≤29	472	30.08±4.20	
30~39	260	29.08±3.69	
40~49	340	29.00±3.66	
50≤	288	29.25±3.34	F=7.07***
교육수준			
중졸 이하	132	29.21±4.07	
고졸	572	29.13±3.69	
대학재학 이상	656	29.76±3.88	F=4.42*
직업			
전문기술직	188	30.02±3.56	
교원	88	29.14±3.38	
판매서비스직	168	29.69±3.04	
단순노무직	56	28.57±2.66	
농어업	32	27.38±1.43	
학생	356	30.48±4.03	
행정사무직	160	29.03±4.11	
가정주부	268	28.67±3.93	
무직	44	27.09±4.57	F=134.60***
결혼상태			
독신자(미혼, 이혼, 사별)	576	29.76±4.08	
유배우자	784	29.21±3.62	t=6.69*
종교 유무			
없다	556	29.29±3.98	
있다	804	29.55±3.72	t=1.57
현 거주지역			
대도시	988	29.54±4.01	
중소도시	256	29.63±3.54	
읍면지역	116	28.21±2.47	F=6.73**
의료보험상태			
직장보험	524	29.05±4.03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200	29.62±3.38	
지역보험	460	29.69±3.93	
의료보호 및 부조(의료급여)	176	29.80±3.33	F=3.16*
경제상태(주관적 판단)			
상	68	28.29±3.88	
중	1244	29.54±3.86	
하	48	28.50±2.32	F=4.97**

* : p<0.05, ** : p<0.01, *** : p<0.001

<표 9> 한방진료 만족도, 진료 효과, 부작용에 따른 한방 및 한약에 대한 지식수준

구 분	계	지식수준	
	1120	M±S.D	
		29.54±3.89	
한방진료 받은 후 전반적인 만족도			
만족함	636	29.64±3.86	
보통	436	29.58±3.85	
불만족함	48	27.92±4.32	F=4.45*
한방치료 효과에 대한 견해			
좋은 편	780	29.86±3.82	
보통	552	29.00±3.77	
나쁜 편	28	26.43±2.66	F=17.32***
한약의 부작용			
있는 편	440	30.49±3.68	
보통	316	29.28±3.62	
없는 편	400	28.94±4.02	F=19.38***

*: p<0.05

(42점 만점)

일반적 특성에서 만족도와 경제상태와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다른 모든 변수에서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성별에서는 여자에서 만족도가 58.5%로 남자에서의 55.1%보다 높았고(p<0.003), 연령별에서는 30대에서 63.5%로 만족도가 타군보다 높았다(p<0.05). 이는 30대에서 한약에 대한 부작용 경험률이 가장 낮았으며 진료 부작용 견해면에서는 없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아서 한약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30대에서 한약을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약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한의사를 비롯한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30대부터의 한방 병의원 이용자에 대하여 한방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재이용 서비스 제고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대학재학이상자에서 62.3%

로 타군보다 높았고(p<0.001), 직업별로는 무직에서 87.5%, 한정사무직 75.7%, 교원 61.9%, 판매서비스직 59.5%, 전문기술직 58.3%로의 순으로 높았으며 학생에서 45.2%, 단순노무직에서 27.3%로 타군보다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p<0.001).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에서 만족도가 59.7%로 독신자보다 높았고(p<0.05), 종교가 있다는 응답자에서 64.2%로 없다는 자의 44.2%로 높았으며(p<0.001), 중소도시 거주자에서 61.5%로 타군보다 높았다(p<0.05).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서 71.1%로 만족도가 낮았다(p<0.001).

11. 한방진료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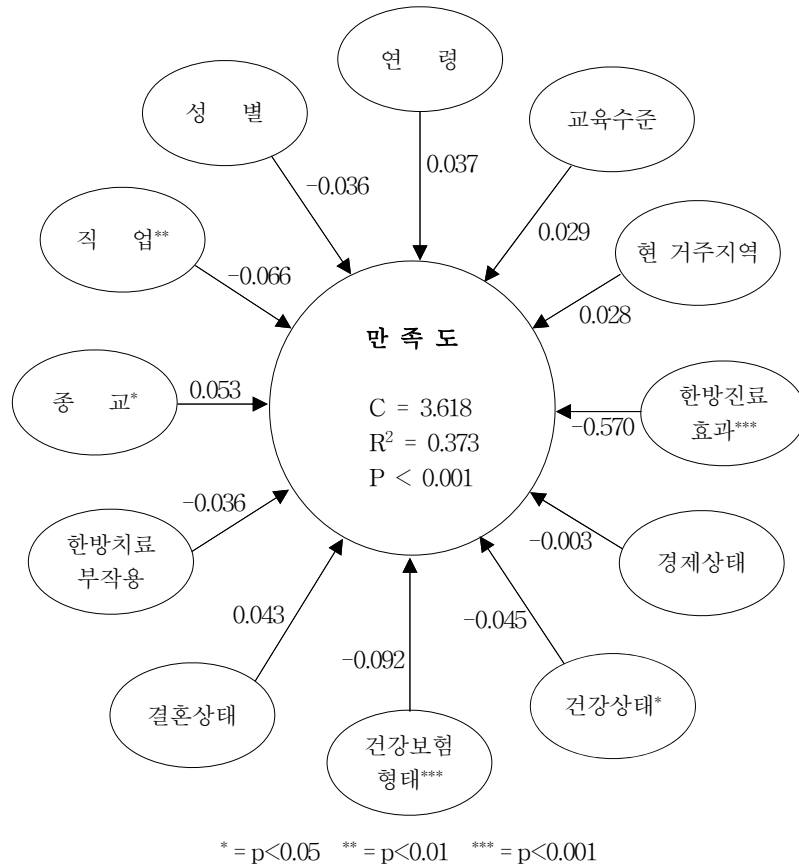
한방진료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관련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표 11> 요약할 수 있다.

<표 10> 일반적 특성별 전반적인 한방진료 후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계 100.0(1120)	만족함 56.8(636)	보 통 38.9(436)	불만족함 4.3(48)	$\chi^2(df)$
성별					
남	100.0(552)	55.1	42.8	2.2	
여	100.0(568)	58.5	35.2	6.3	15.98(2)***
연령(세)					
≤29	100.0(348)	50.6	42.5	6.9	
30~39	100.0(208)	63.5	34.6	1.9	
40~49	100.0(308)	55.8	40.3	3.9	
50≤	100.0(256)	60.9	35.9	3.1	16.86(6)*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0.0(116)	62.1	37.9	-	
고졸	100.0(484)	49.6	44.6	5.8	
대학재학 이상	100.0(520)	62.3	33.8	3.8	23.04(4)***
직업					
전문기술직	100.0(144)	58.3	38.9	2.8	
교원	100.0(84)	61.9	38.1	-	
판매서비스직	100.0(148)	59.5	40.5	-	
단순노무직	100.0(44)	27.3	63.6	9.1	
농어업	100.0(28)	57.1	42.9	-	
학생	100.0(248)	45.2	46.8	8.1	
행정사무직	100.0(148)	75.7	24.3	-	
가정주부	100.0(244)	54.1	37.7	8.2	
무직	100.0(32)	87.5	12.5	-	92.17(16)***
결혼상태					
독신자(미혼, 이혼, 사별)	100.0(416)	51.9	42.3	5.8	
유배우자	100.0(704)	59.7	36.9	3.4	8.10(2)*
종교 유무					
없다	100.0(416)	44.2	50.0	5.8	
있다	100.0(704)	64.2	32.4	3.4	42.61(2)***
현 거주지역					
대도시	100.0(820)	55.6	39.0	5.4	
중소도시	100.0(208)	61.5	38.5	-	
읍면지역	100.0(92)	56.5	39.1	4.3	12.19(4)*
의료보험상태					
직장보험	100.0(452)	61.1	33.6	5.3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100.0(180)	71.1	26.7	2.2	
지역보험	100.0(368)	45.7	51.1	3.3	
의료보호 및 부조(의료급여)	100.0(120)	53.3	40.0	6.7	45.85(6)***
경제상태(주관적 판단)					
상	100.0(64)	62.5	31.3	6.3	
중	100.0(1016)	56.7	39.4	3.9	
하	100.0(40)	50.0	40.0	10.0	5.64(4)

* : p<0.05, *** : p<0.001



<그림 2> 한방의료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방진료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은 직업($\beta=-0.066$)($p<0.01$), 종교($\beta=0.053$)($p<0.05$), 건강보험형태($\beta=-0.092$)($p<0.001$), 건강상태($\beta=-0.045$)($p<0.05$), 한방진료의 효과($\beta=0.001$)였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7.3%였다(그림 2).

12. 한방의료 및 한약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종속변수 한방의료 및 한약에 대한 지식(Y)에 대한 독립변수(X_i)의 관계는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Y = 26.728 - 0.607X_1(\text{성별}) - 0.344X_2$

(연령) + 0.128 X_3 (교육수준) + 2.688 X_4 (직업) + 0.225 X_5 (결혼상태) + 0.749 X_6 (종교) - 0.405 X_7 (현거주지역) + 0.281 X_8 (건강보험형태) + 0.155 X_9 (건강상태) + 0.350 X_{10} (경제상태) - 0.526 X_{11} (한방치료부작용)이었다.

한방치료 및 한약 지식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인자는 성별($\beta=-0.079$)($p<0.01$), 연령($\beta=-0.104$)($p<0.05$), 직업($\beta=0.124$)($p<0.001$), 종교($\beta=0.096$)($p<0.01$), 현거주지역($\beta=-0.067$)($p<0.05$), 건강보험 형태($\beta=0.080$)($p<0.01$), 한방치료를 부작용($\beta=-0.121$)($p<0.001$)이었으며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15.2%였다.

<표 12> 한방의료 및 한약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다중회귀분석)

Classification	b	S.E	Beta	Sig T
성별	-0.607	0.214	-0.079	0.005
연령	-0.344	0.150	-0.104	0.022
교육수준	0.128	0.179	0.022	0.472
직업	2.688	0.587	0.124	0.000
결혼상태	0.225	0.339	0.029	0.507
종교	0.749	0.219	0.096	0.001
현 거주지역	-0.405	0.168	-0.067	0.016
건강보험형태	0.281	0.097	0.080	0.004
건강상태	0.155	0.153	0.028	0.313
경제상태	0.350	0.356	0.027	0.326
한방치료의 부작용	-0.526	0.117	-0.121	0.000
Constant	26.728	1.285		0.000
R ²		0.152		
F		7.782		
Significance		0.000		

비고 : 성별 → 남자=1, 여자=0
 직업 유무 → 있다=1, 없다=0
 종교유무 → 있다=1, 없다=0
 의료보험형태 → 의료보험=1, 의료급여=0

V. 요약 및 결론

일반주민들의 한방질료양상, 치료방법 및 만족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 1,520명을 편의 추출하여 2005년 2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문 조사를 하여 얻은 결론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요약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녀 공히 50.0%였으며 29세이하가 31.7%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학 재학이상이 48.2%였다. 직업은

학생이 26.3%, 유배우자 57.6%, 종교를 가진자가 59.1%, 대도시 거주자가 72.6%였고, 자가판단 경제상태가 상위수준이 5.0%, 중위수준이 91.5%였다.

2) 건강하다는 응답률 46.8%, 불건강하다는 응답률 12.4%였으며, 지난 6개월간 진료받은 경험에있는 한방진료 질병양상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이 66.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소화기계질환이 18.9%였으며, 호흡기질환은 16.4%, 내분비 영양대사질환이 8.2%, 순환기계 질환이 7.5%이었고 기타질환은 각각 5% 이내이었다. 질병별 한방진료방법은 근골격계질환 치료시 침치료가 84.9%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었다. 소화기계 질환의 첩약 이용자가 47.0%로 가

장 선호되었으며, 호흡기계 질환에서는 침약 치료에서는 63.0%로 가장 선호하는 치료방법이었다.

3)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침치료(84.9%), 호흡기와 소화기계 질환(63.0%와 47.0%), 내분비계 질환(73.9%), 순환기계 질환에서 높았으며(61.9%), 환약치료는 근골격계와 소화기 질환이 대부분이고, 복합치료의 경우는 근골격계와 소화기계 질환, 혈액조혈기질환 및 면역장애질환이 높았다.

4) 질병별 치료 만족도는 순환기 질환, 소화기 질환, 신경계 질환, 근골격계의 순이었으며, 한방진료 부작용은 39.4%였고, 한약 복용부작용은 38.1%이었다. 한약 약제비가 부적당하다는 응답률이 51.9%였고, 적당하다는 응답률이 23.2%였다.

5) 한약에 대한 지식수준 42점 만점에 29.2±3.83점(100점 기준 69점)으로 비교적 낮았으며 이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 종교, 치료 부작용, 성별, 연령, 거주지역, 보험형태이었으며 설명력은 15.2%였다.

6) 한방진료 후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56.8%였으며, 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 종교, 건강보험형태, 건강상태, 한방진료의 효과였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7.3%였다.

2. 결론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병치료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불만족이 극히 낮음)이었으며 부작용 경험도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질병의 치료에서 전반적인 한방의 치료 만족도는 일부 특정질환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편

이었으며, 치료효과가 뛰어난 특정질환을 중심으로 편중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시대를 맞이하여 관련전문인인 한의사와 한방관련단체 등이 전반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가 고르게 이루어지고 부작용이 감소 될 수 있는 치료방법을 개발하고 약제비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단순화하여 한방의료서비스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창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행태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방안,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0

강학원, 도시지역 주민의 한방치료 질병양상과 만족도 연구조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김건엽, 이영숙, 박기수, 손배희, 감심, 천병렬, 박재용, 예민해, 지체장애인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방의학회지, 31(2), 1998

김석범, 강복수, 대구시민의 의료기관 이용률과 연관요인, 예방의학회지, 22(1), 31-43, 1989

김성진, 남철현, 강영우, 서호석, 전봉천, 장영진, 지역사회주민의 한약 복용에 대한 의식 조사연구, 6(1), 15-35, 대한예방의학회지, 2002

김진순, 유효신, 주민의 전통의술이용도 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p. 3, 1988

남철현, 공중보건에서 한의사의 역할, 한의학과 공중보건세미나 보고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pp. 52-63, 1989

남철현,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계축문화사, pp. 182-184, 1998

남철현, 김혜련, 국민보건의식행태 조사연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p. 130, 1984

- 박성순, 남철현, 한국인의 한방의료이용에 대한 인식과 행태요인분석, 대한보건협회학술지 15(2), 34-50, 1999
- 박형준, 윤채현, 김진희, 문옥륜, 한의사 전문의 인력수급에 관한 한방의료계의 인식조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9(1), 2005
- 배상수, 국민건강의 결정요인 3, 질병예방 및 의료이용행태, 예방의 학회지, 26(4), 508-533, 1993
- 서호석, 남철현, 박찬우, 김성진, 이미경, 하은필, 가정주부의 한약에 대한 지식수준과 관련요인, 대한예방한의학회지, 6(1), 96-116, 2002
- 이상영, 변용찬, 양·한방의료협진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이상봉, 농촌보건소 이용 환자의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용일, 남철현, 변정환, 도시지역주민의 한약 복용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대한보건협회지, 17(1), 1991
- 이용창, 민속요법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의식조사, 대한보건협회지, 19(2), 78-99, 1993
- 임상규, 의약품관련지식이 의약품 사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경산대학교 보건학박사 학위논문, 1999
- 조재국, 남철현, 김재돈, 김병화, 김기열, 한방의료 이용행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예방한의학회지 8(1), 2004
- 한동운, 김향자, 윤태형, 우혜경, 우리나라 한방의료 현황과 과제, 미래사회를 위한 정책적 선택, 대한예방한의학회지, 9(1), 2005
- 한동운, 임병묵,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한방공공의료역할 증진 방안,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 허준, 동의보감, 대성출판사, 1983
- 보건복지부, 2005년도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 지침서, 2005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 2002-3
- Aday, L. A., Designing and Conducting Health Surveys, The Jossey-Bass Health Series and The Jossey-Bass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 Series, 1989
-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Health Communities 2000: Model Standards, 1991
- Bloom. S.W., The Doctor and His Patient, New York: The Free Press, 1963
- David Reilly, Comments o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in Europe,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7(Supplement 1), 2001
- Parker MH, The regulation of complementary health: sacrificing integrity?,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179(6), 2003
- Ted J. Kaptchuk, Franklin G. Miller: What is the best and most ethical model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mainstream and alternative medicine: opposition, integration, or pluralism?, Academic Medicine 80(3), 2005
- Young J., "Treatment Decision Making in a Mexican Town," Medical Choice in Cultural Content, New Brunswick, 1980
- WHO,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monitoring Progress Towards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WHO Health for all series No. 4, Geneva, 1981

[부록]

<한방 진료 양상과 치료 만족도>

I.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2. 연 령: 만 _____세
3. 교육정도: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졸업이상
4. 직 업: ()① 전문기술직 ()② 교원 ()③ 판매서비스직 ()④ 단순노무직
()⑤ 농·어업 ()⑥ 학생 ()⑦ 행정사무직 ()⑧ 가정주부 ()⑨ 무직
5. 결혼상태: ()① 미혼 ()② 유배우 ()③ 독신(이혼, 사별, 별거)
6. 종 교: ()① 없음 ()② 기독교 ()③ 불교
()④ 천주교 ()⑤ 기타(_____)
7. 현 거주지역: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지역
8. 성장지역: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지역
9. 의료보험 상태: ()① 직장보험 ()②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③ 지역보험 ()④ 의료보호 및 부조
10. 건강에 대한 자신의 평가:
()① 매우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매우 건강하지 않다
11. 귀하가정의 경제상태는?
()① 상 ()② 중 ()③ 하
12. 거주형태: ()① 자가 ()② 친척집 ()③ 하숙
()④ 자취 ()⑤ 기타(_____)
13. 현재 아픈 곳이 있습니까?
()① 있다 (질병명: _____) ()② 없다

II. 한방진료 및 의료에 관한 사항

14. 귀하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방문하는 보건의료기관은?
 ()① 병의원 ()② 약국(방) ()③ 한방병의원 ()④ 자가치료
 ()⑤ 보건(지)소 ()⑥ 보건진료소 ()⑦ 한약종상 ()⑧ 기타()
15. 귀하께서는 주로 어떤 경우에 한방진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2개 이상 가능)
 ()① 보약을 지을 때 ()② 순환기계 질환(심장병, 고혈압 등)
 ()③ 호흡기계 질환(감기, 폐질환 등) ()④ 근골격계 질환(관절염, 삐었을 때 등)
 ()⑤ 비뇨기계 질환 ()⑥ 소화기계 질환
 ()⑦ 건강상담하기 위하여 ()⑧ 기타()
16. 지금까지 한방진료를 몇 번 정도 받았습니까?(없으시다면 19번으로 가 주십시오)
 ()① 없다 ()② 1~2번 ()③ 3~4번
 ()④ 5~9번 ()⑤ 10~19번 ()⑥ 20번 이상
17. 과거 한방치료 경우 다음 어떤 질병에 어떤 치료를 받았으며 그 결과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해당란에 ○표를 해 주십시오(3가지 이내).

질 병	치 료 방 법					치 료 후 만 족 도		
	침치료	침약	환약	부황	복합 치료	만족	보통	불만족
1)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2) 신생물								
3) 혈액, 조혈기 질환 및 면역장애질환								
4) 내분비, 영양대사 질환								
5) 정신 및 행동장애(노이로제 등)								
6) 신경계 질환								
7) 눈 및 눈부속기 질환								
8) 귀 및 유양돌기 질환								
9) 순환기계질환(심장병, 고혈압 등)								
10) 호흡기계질환(감기, 폐 등)								
11) 소화기계질환(위궤양, 대장염, 위염 등)								
12) 피부 및 피하조직 질환								
13)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4) 비뇨생식기계 질환								
15) 임신, 출산, 산욕								
16) 주산기에 관련된 병태								
17)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18) 다른 곳에서 분류되지 않은 증후, 증상, 임상 및 검사소견								
19) 손상·중독 및 외인의 기타결과								
20)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21) 보건상태 및 보건조사자와의 접촉에 영향을 주는 각종요인								

18. 전반적으로 한방진료를 받은 후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9. 한방진료의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안좋다 ()⑤ 매우 안좋다
20. 진료비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약값 포함)
 ()① 매우 비싸다 ()② 비싼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싸편이다 ()⑤ 매우 싸편이다
21. 귀하의 한방진료의 이유 중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① 한방이 잘 들을 것 같아서 ()② 부작용이 없어서
 ()③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④ 보약으로는 좋아서
 ()⑤ 기타(_____)
22. 한방치료를 앞으로도 계속 받겠습니까?
 ()① 받겠다 ()② 받지 않겠다 ()③ 생각한 후 결정하겠다 ()④ 잘 모르겠다
23. 한방과 양방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양방은 빨리 치유되지만 한방은 치유가 늦다. 예() 아니오()
 ② 양방은 치료위주지만 한방은 보호, 예방위주이다. 예() 아니오()
 ③ 양방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만 한방은 자연약품을 사용한다. 예() 아니오()
 ④ 양방은 진료비 및 약값이 싸지만 한방은 비싸다. 예() 아니오()
24. 한방진료가 보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5. 한방에서 보험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① 진찰비 ()② 입원비 ()③ 약제비(보약비 제외)
 ()④ 침 ()⑤ 구(뜸) ()⑥ 부황 ()⑦ 보약비
26.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한의사의 역할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재로도 좋다 ()② 한의학을 좀더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③ 어느 정도 양방의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④ 잘 모르겠다
27. 한방치료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심하다 ()② 약간있다 ()③ 보통이다
 ()④ 없는 편이다 ()⑤ 전혀없다
28. 한방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기회가 없었다 ()②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③ 과학적이 아닌 것 같아서 ()④ 거리가떨어서

- ()⑤ 진료비가 비싸서 ()⑥ 약먹기가 힘들어서
()⑦ 한의사가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⑧ 의료보험이 안되어서
()⑨ 기타(_____)
29. 한방의료에 관한 상식은 어디에서 얻습니까?(1가지만 답해 주십시오)
()① TV, 라디오 ()② 관련서적 ()③ 신문 ()④ 한방관련 정보지
30. 다음 병에 대한 민간요법을 하나라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해당사항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1) 경증(놀람) 2) 무좀 3) 변비 4) 두드러기 5) 여드름 6) 속앓이
7) 간염 8) 고혈압 9) 갑상선질환 10) 천식 11) 당뇨병 12) 심장병
13) 폐질환 14) 불임증 15) 기타 민속요법(_____)
31. 민간요법이 과학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근거가 있다 ()② 근거가 없다 ()③ 잘 모르겠다
32. 민간요법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① 효과가 크다 ()② 약간 효과가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효과가 적다 ()⑤ 효과가 없다
33. 질병에 걸렸을 때 민간요법을 사용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사용해 보았다 ()② 사용해 볼 의사가 있다
()③ 사용할 의사가 없다 ()④ 그때 가봐야 알겠다
()⑤ 잘 모르겠다
34. 평소 건강증진을 위하여 하는 행동이 있습니까?
()① 체력단련운동: _____ ()② 식생활 개선: _____
()③ 보약, 영양제 복용: _____ ()④ 여가생활 많이 가짐: _____
()⑤ 기타: _____

III. 한약에 관한 사항

35. 한약을 드셔 본 경험이 있습니까?(없으시다면 37번으로 가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36. 주로 어떤 경우에 한약을 드십니까?
()① 치료약으로 ()② 보약으로
37. 한약의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안좋다 ()⑤ 매우 안좋다

38. 약값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당하다 ② 적당하다 ③ 보통이다
④ 적당하지 않다 ⑤ 매우 적당하지 않다
39. 한약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심하다 ② 약간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없는 편이다 ⑤ 전혀 없다
40. 약국에서 한약을 지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없으시다면 42번으로 가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41. 있으시다면 주로 어떤 종류의 약이었습니까?
① 치료약 ② 보 약
42. 약국에서 지은 한약이 한방병원에서 지은 한약에 비하여 효과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43. 약국에서의 한약값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4. 한약을 드시고 싶습니까?(“예”면 45번으로, “아니오”면 46번으로 가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오
45. 드시고 싶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약효가 좋기 때문에 ② 부작용이 적어서 ③ 주위에서 권하므로
④ TV, 라디오를 듣고 ⑤ 광고나 선전문을 보고 ⑥ 막연히 끌려서 ⑦ 기타
46. 드시기 싫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약이 너무 쓰기 때문에 ②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③ 먹기가 불편해서
④ 복용시 가리는 것이 많아서 ⑤ 기타(_____)
47. 한약제를 수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이면 48번으로, “④, ⑤”이면 49번으로 가주십시오)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48. 한약제를 수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약제의 품질이 좋기 때문에
②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약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③ 모르겠다 ④ 기타(_____)
49. 약제를 수입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외국 약제는 우리나라 체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② 나쁜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 ()③ 마스크에서 나쁘다고 했기 때문에
()④ 모르겠다
()⑤ 기타(_____)
50. 시중에 나오는 한약제를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51. 침약의 의료보험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 되어도 그만 안되어도 그만이다
()③ 포함시킬 필요없다 ()④ 모르겠다
52. 한방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한약제를 다 달여 봉지에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약 효과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편리해서 그렇게 해서 먹겠다
()② 약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나 달이기 귀찮아서 그렇게 해서 먹겠다
()③ 약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약탕관에 직접 달여 먹겠다
()④ 잘 모르겠다

IV. 한방 병의원 및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53. 한방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4. 한방병원에도 응급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꼭 필요하다 ()②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③ 필요없다
55.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에 한방과가 개설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②"이면 56번으로, "③"이면 57번으로 거주십시오)
()① 관심없다 ()② 개설되는 것이 좋다 ()③ 개설 안되는 것이 좋다
56. 좋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① 한방진료와 양방진료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② 한의사와 양의사 들이 도와가면서 의학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③ 모르겠다 ()④ 기타(_____)
57. 나쁘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① 한방과 양방은 치료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② 한방과 양방이 같이 있으면 한의사와 양의사들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③ 한방과 양방이 같이 있으면 양약사가 한약을 지을 것이므로
()④ 모르겠다 ()⑤ 기타(_____)

58. 한방치료 방법에 대한 의견은?
 ① 현재의 치료방법이 좋다
 ② 반드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③ 약간 좀 더 연구개발되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59. 누구를 통하여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 가십니까?
 ① 배우자 ② 부모님 ③ 친구
 ④ 주위 분들 ⑤ 혼자 결정하여 ⑥ 기타(_____)
60. 한방병원에서 주사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61. 일반적인 한방 병원의 규모와 시설은 어떠합니까?
 ① 현재 이대료가 좋다 ② 일부 개선하는 것이 좋다
 ③ 완전히 개선되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
62. 한방 병원에 진단을 위하여 약간의 양방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④ 없는 것이 좋다
63. 다음 질병일때 치료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의료기관은?

	양방병원	한방병원	한약종상	보건소	약 국	기 타
뼈었을 때						
관 절 염						
신 경 통						
간 염						
고 혈 압						
당 뇨 병						
중 풍						
자갈풍(망아리)						
정신질환						
몸살, 감기						
암 종류						
소화장애						
심 장 병						
부 인 병						

V. 의료제도에 관한 사항

64. 한방 전문의사에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드시 필요하다 ()②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③ 필요없다 ()④ 잘 모르겠다
65. 약사가 한약을 짓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당연하다 ()② 지을 수 있다 ()③ 관심 없다
()④ 잘못되었다 ()⑤ 매우 잘못되었다
66. 한의사와 약사간의 의료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당연하다 ()② 당연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잘못되었다 ()⑤ 매우 잘못되었다
67. 한방과 양방을 이용할 때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① 질병에 따라 치료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곳을 선택한다
()② 치료비가 싼 편이라고 생각되는 쪽을 선택한다
()③ 주위의 권유에 따라 선택한다
()④ 기타(_____)
68. 한양방 의료협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
()② 치료특성이 없게 되어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어 불필요하다
()③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으로 관심없다

VI. 한방지식에 대한 시간

69. 여름철에 한약을 먹으면 약기운이 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약효를 전혀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 체력이 약해지므로 오히려 한약이 효과가 있다
()② 땀으로 약기운이 빠져나가므로 효과를 볼 수 없다.
()③ 체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므로 잘 모르겠다.
70. 보약으로 지은 것은 아무나 먹을 수 있으며 누구든지 보약은 책에 있는 처방대로만 지어서 먹으면 된다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어떤 보약이든 먹으면 무조건 좋아진다.
()② 개인에 따라 처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아무나, 누구든지 먹을 수도 지을 수도 없다.
()③ 잘 모르겠다.
71. 녹용을 먹으면 머리가 둔해진다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실제로 뇌 기능이 저하가 되어 머리가 둔해진다.
()② 옛날에 지어낸 속설에 불과하다.
()③ 잘 모르겠다.

72. 인삼은 건강식품이므로 아무나 달여서 먹으면 좋다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아무나 먹으면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다.
 ()② 속이 찬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으므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③ 잘 모르겠다.
73.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 한약을 먹으면 간에 해독기능이 떨어져 실제로 간이 나빠진다.
 ()② 한약도 간 질환에 쓰는 치료약이 많이 있으므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③ 잘 모르겠다
74. 땀이 많이 나는 것은 몸이 허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실제로 몸이 허하면 땀이 많이 난다.
 ()② 땀이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므로 꼭 허하다고만 볼 수 없다.
 ()③ 잘 모르겠다.
75.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침을 맞았다면 어디가 좋지 못해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① 요통 ()② 견비통 ()③ 관절염
 ()④ 위장장애 ()⑤ 두통 ()⑥ 기타
76. 소아들의 경기(기가 놀라서 혈이 막힘)에도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십니까?
 ()① 병원 ()② 약국 ()③ 한의원 ()④ 보건소 ()⑤ 경험이 없다.
77. 소아 경기에 한의원을 이용했다면 효과에 만족하십니까?
 ()① 그런 경우가 없었다 ()② 만족한다 ()③ 조금 만족한다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⑤ 훨씬 악화되었다
78. 친지 중에 중풍환자가 있다면 귀하는 어느 의료기관을 추천하시겠습니까?
 ()① 종합병원 ()② 한방병원 ()③ 한의원 ()④보건소 ()⑤기타
79. 중풍에 한방병원, 한의원을 이용했다면 효과에 만족하십니까?
 ()① 그런 경우가 없었다 ()② 만족한다 ()③ 조금 만족한다
 ()④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⑤ 훨씬 악화되었다
80. 임신중 한약을 복용하는 경우
 ()① 입덧이나 자연유산예방, 허약하지 않은 아기 출산을 위하여 먹어도 된다.
 ()② 태아가 커져서 출산이 어렵거나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어 먹으면 안된다.
 ()③ 잘 모르겠다
81. 부항으로 나쁜 피는 뽑아야 좋다는데 대한 지식
 ()① 나쁜 피는 뽑아야 하므로 부항 등 요법으로 뽑는 것이 좋다.
 ()② 부항요법은 진통효과와 국소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피를 내지 않고도 효과가 있다.
 ()③ 잘 모르겠다.

82. 한약을 복용하면 살이 찢까 봐 두렵다는데 대한 지식
 ()① 한약을 먹으면 입맛이 좋아져서 많이 먹게 되어 살이 찢까 봐 먹기 두렵다.
 ()② 한약은 실제 모든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살찌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잘 모르겠다.
83. 혈압이 높던가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을 복용하면 안 된다는 데 귀하의 의견은?
 ()① 복용하면 안 된다.
 ()② 필요한 경우 복용해도 관계가 없다.
 ()③ 잘 모르겠다.
84. 감기에 쌍화탕이 좋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감기시 좋다고 생각하므로 먹을 수 있다면 언제라도 먹겠다.
 ()② 체질에 따라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③ 잘 모르겠다.
85. 몸이 차고 생리불순에는 익모초가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좋다고 생각하므로 먹겠다.
 ()② 생리혈이 묽거나 양이 많거나 배가 찢 때는 먹어서는 안 된다.
 ()③ 잘 모르겠다.
86. 꿀은 아무나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야윈 사람이나 위장이 쓰리고 변비가 잘 되는 사람에게는 큰 효과가 있다.
 ()② 살찐 사람이나 술을 즐기는 사람, 과자를 많이 먹는 어린이 등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좋다.
 ()③ 잘 모르겠다.
87. 한약 복용할 때 가려먹는 음식에 대한 지식
 ()① 한약을 복용할 때 닭고기, 돼지고기, 밀가루 음식, 커리, 맵고 짠 음식, 술 등 가려야 할 음식이 많은데 약효와 관련이 있으니 지켜야 한다.
 ()② 금해야 할 음식은 한약의 약 효과와 관련되기보다도 그 사람의 소화능력과 병의 성질 때문에 가리는 것으로 즐겨 먹는 음식인 경우 위장이 괜찮을 때는 먹어도 괜찮다.
 ()③ 잘 모르겠다.
88. 다음 한방치료를 한 경우 효과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용 경험 없다	대단한 효과	약간 효과	보통	효과 적다	전혀 효과 없었다
침	()	()	()	()	()	()
뜸	()	()	()	()	()	()
부항	()	()	()	()	()	()
한약침약	()	()	()	()	()	()
한약과립	()	()	()	()	()	()
한약환	()	()	()	()	()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